

종단 소식

조계종

중앙종무원 첫 출가교육

총무원(원장 월주)이 처음으로 중앙종무원간 총무원 출가교육을 실시한다.

통도사 설립전에서 실시될 이번 출가교육은 1차 19~21일, 2차 26~28일 두차례로 나누어 열리며 각각 50명이 참가한다. 교육 내용은 참선, 반야심경, 사경, 독경 등이며, 마지막날엔 통도사 부방장 청하스님을 게스트로 수계식이 열린다.

천태종

해장사 국태민안 천도제

진해 해장사(주지 진덕)는 4일 대웅전에서 호국영령추모대법회를 봉행했다.

각급 기관장 및 지역신도 5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호국영령을 위한 영가천도제와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발원문이 봉독됐다.

원효종

순국선열·장병 위령제

대구·경북교구 총무원(원장 부공)은 10일 경주 황성공원 충혼탑에서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 위령대제'를 열었다.

해군군악대의 연주로 시작된 이날 위령제는 과불이운에 이어 권공, 천수바라, 부총정 벽송스님 법어, 영가천도의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동종

운파스님 종정 재추대

총무원(원장 송정)은 29일 오전 11시 율리피아 호텔에서 종정, 부총정, 승정원장 추대 및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취임법회에서는 운파스님이 제1세에 이어 2세 종정에 재추대되며, 부총정에는 영봉스님이, 승정원장에는 전총무원장 지명스님이 각각 추대된다. 또 사무총장을 맡아왔던 승정스님이 총무원장에 취임한다.

해동종

수원 보련사 진신사리 친견

수원 보련사 포교원(주지 청운)은 8일 동포교원에서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대법회를 봉행했다.

대각종

부여 미암사 대웅전 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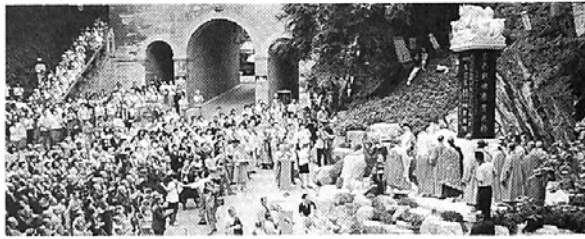
종단 총본산인 부여 계향산 미암사(조신 만칭)는 9일 대웅전 낙성식 대법회를 가졌다.

천태대사 열반 1400주 추모대제 현장

“무명중생 구하자” 한중일 합장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9~10일 이틀간 총본산 구인사에서 천태지자대사열반 1천4백주년 한·중·일 합동 추모대제를 봉행했다.

전야제, 세계평화와 남북평화통일 기원비 제막, 추모법요식, 만찬 순으로 진행된 이번 추모대제에는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명양(明陽)법사를 비롯해 국청사 방장 가명(可明)스님 등 중국측 불교인 40여명과, 일본 천태종 종정 와다나베 에쓰스님, 천태종 총본산 히에산 연



천태지자대사열반 1천4백주년 한·중·일 삼국 천태종 합동 추모대제 9~10일 이틀간 구인사에서 개최됐다.

통일기원비 제막...사부대중 5천명 참석

역사 주지 고바야시 류조스님 등 일본측 불교인 1백60여명을 비롯해 사부대중 5천여명이 참석했다.

상경례로 시작된 대법회는 9일 전야문화예술제가 펼쳐진 데 이어 10일에는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기원비 제막식 및 추모법

이에 중국 가명 방장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전해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으며, 일본 와다나베 에신 천태종 종정은 “천태지자대사의 법을 다시 새겨 중생 제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구인사=한명우 기자

월정사 한일문화교류대회 성료

“불교유산 보호” 공동 결의



한일불교교도 5백여명이 참가한 제18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11~13일 월정사에서 열렸다.

적멸보궁 참배·세미나통해 우의다져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법흥스님)는 11~13일 월정사에서 제18차 한일교류대회를 개최하고 △국경 초월 중생구제 △2002년 월드컵대회 성공기원 △불교 문화유산 보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월주 인국 흥파스님 등 각 종단 대표들과 게이쇼 일본 불교협회 이사장 등 한일불교교도 5백여명은 공동법요식에서 양국 우호와 불교

발전을 서원했다. 특히 장충식교수(동국대)와 고데스교수(일본 대정대)는 사리신앙과 조사신앙 등 한일불교의 특징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그밖에도 삼원사 정암사 법종사 적멸보궁 참배, 세미나, 선불교관과 만찬 등을 통해 양국 불교도들의 신심과 우의를 다졌다.

월정사=김주일 기자

종단 이미지 대입영향 안미쳐

위덕대 97신입생 설문조사

진각종 종립대학인 위덕대학교 97년 신입생 불교를 신앙하는 학생이 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교학과 학생 중 불교를 신앙으로 하는 학생은 7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교신앙 학생 39%
진각종도는 3명

위덕대(총장 손재석)가 지난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3백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불교를 신앙하는 학생수는 무교 1백62명(42%)에 이어 두번째인 1백52명(39.4%)으로, 불교를 신앙하는 학생이 타종교 학생보다 위덕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신교는 41명(10.6%), 천주교는 26명(6.7%)으로 나타났다.

또 이 결과는 '96신입생 설문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개신교, 천주교를 신앙하는 학생이 각각 4%씩 증가한 것으로 타종교를 신앙하는 학생들에게 배타적 이미지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진각종을 신앙하는 학생은 3명에 불과해 진각종 종립대학 이미지가 신입생 선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불교학과(정원 40명) 학생 16명중 불교교 3명이었으며 개신교를 신앙하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佛放蕘령 도피 김선도씨 체포

베트남서...수사활기 멀듯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1월 베트남으로 도피했던 김선도씨(前 경리부 차장)가 16일 아시아나 362편으로 서울로 압송된다.

<13일 현재>

이번 사건의 해결여부가 될 김씨는 베트남 현지 자신의 형 친구집에 숨어 있었으나 그 부인의 신고로 5일 자정 현지 경찰에 체포·구금됐다. 11일에는

불교방송 재단수습대책위 실무위원 박원식 기자가 직접 김선도씨를 만나 회사자금 유용 및 횡령부분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박씨는 영사를 통해 인수증 문제등 사후처리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김씨의 체포로 그동안 진상규명에 지지부진했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으나 과연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의상스님이 창건한 부석사는 화엄십찰(華嚴十刹)의 하나로 우리나라 화엄종의 근본도량입니다. 국보와 보물이 즐비한 부석사에서 특히 유명한 것은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목조건축물인 무량수전(국보 18호)입니다. 우아한 배흘림기둥과 늘름하연서도 기 품있는 건축미를 지닌 무량수전은 세계의 건축가들이 한 번씩 보고가는 곳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중에서도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멀리 소백산의 연봉(連峯)을 바라보면 우리 산하에 대한 사무치는 고마움을 절절히 실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귀경하는 길에는 시원한 계곡과 장대한 회방폭포로 유명한 회방사도 참배합니다.

'한국 목조건축의 아름다움'

6월 테마여행 - 부석사·회방사

참가 안내

- 출발: 6월 29일(일) 오전 7시·조계사 앞
- 안내: 이강근 교수(경주대)
- 회비: 3만원(점심 각자 지참)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한우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일약품



조계종은 6일 캄보디아와 불교교류에 대해 협의했다.

조계종-캄보디아 불교 '첫 교류'

테폰스님 만나 강원·승가교육 협력 합의

조계종(총무원장 월주)과 캄보디아 불교계간의 공식적인 불교교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조계종은 6일 캄보디아 프놈펜 오날라움 사원에서 캄보디아 불교의 최고지도자인 테폰스님(73)을 만나 양국불교교류와 우호증진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테폰스님(총무원장)은 캄보디아 강원 및 승가교육에 대한 지원의사를 밝히고, 내년 부처님오신날에 테폰스님이 방한해 줄 것을 공식요청했다. 이에 대해 테폰스님은 “한국과 캄보디아 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점에서 같은 형제이다”며 승려교육등 인적 교류를 활발히 추진해 가자고 말했다. 테폰스님은 미타종의 초청으로 19일 방한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조계종과 상호교류에 관한 공식합의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이

번 캄보디아 방문으로 스리랑카, 태국에 이어 세번째로 남방불교와 친선관계를 맺게 됐다.

부산 정각회 창립

부산광역시 정각회(임시대표 권영직)는 17일 롯데호텔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서석재 의원, 문정수 부산시장, 이종만 부산시의회의장, 전선택씨,

마음 믿고 맡기자

믿고 맡기는데는 장된다, 장될 것이냐는 전제조차도 없어 야 한다. 버렸다, 버린다고 불지 않는다. '주인공이 다하는 것이' 하면 그 뿐이다.

협찬 한미음선원 법형제회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놀라운 사실! 이 책을 읽는 순간 내가 한국인임이 자랑스럽다! 『일본의 천황이 된 가야의 응신왕자와 인덕왕자!』 일본을 정복한 한국인 이야기 프랑크호소노/신동란역 미국 인류학자 프랑크 호소노가 정직한 고증으로 쓴 장편소설! 14년간 한일간을 오가며 고대사를 연구한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일본이 발굴을 금지한 응신고분과 인덕고분의 비밀을 풀어준다. 가야의 신왕에게는 용감한 응신과 인덕 두 왕자가 있었다. 신라의 대군에 가야가 멸망하자 응신과 인덕왕자는 가야의 철기문화와 정예 기마군단을 이끌고 원시 석기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야의 속국인 동쪽 섬나라를 정벌하여 토요우라, 이즈모, 여마도에 이르는 광대한 땅에 나라를 세워 천황으로 등극. 일본 천황가의 시조가 된다.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정가 7,000원 문의전화:488-2923, 팩스:473-0481

정형남 장편소설 토굴 정형남 불교소설 정가 7,000원 큰 두상을 갖고 황소울음을 울며 태어난 스님은 일제의 강점기에 시달리며 험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보고 비분강개, 군인이 되려하나 여의치 않아 승문으로 들어간다. 불교계의 거목인 스님의 행적은 민족을 격정하는 한 인간으로, 해탈자로 우리 민족사상의 중요한 획을 긋고 있다. 자비로움이 가득한 금강도인의 숨겨진 행보를 찾아! 정형남 장편소설 여인의 새벽 정5권 각 6,500원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문의전화:488-2923, 팩스:473-0481